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김 금 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구분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을 검증하고, 이에 사회정체성이론(Tajfel, 1982)에 근거한 한국인집단정체성 및 고정관념과 편견이 포함된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다문화 수용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한국인집단정체성, 고정관념, 및 편견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먼저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47.4%가 설명되었고, 다문화 수용적 행동은 61.1%가 설명되었다. 이어서 한국인집단정체성을 추가하고, 고정관념, 편견을 더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51.8%, 행동의 65.9%가 설명되었다. 전체 모형에서 한국인집단정체성의 영향은 대체로 약했고,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은 행동의도 다음으로 중요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높이는 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고정관념 및 편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수용성, 고정관념, 편견, 계획된 행동이론,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한국인집단정체성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9-353-H00006]

† 교신저자 : 김금미,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E-mail : imttokki@hanmail.net

‘베트남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쩌타인란이 왜 숨졌는지, 자살을 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른 베트남 신부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2008. 3. 10. 한겨레; 이수정, 이혜선, 김연정, 명정, 강명희, 2008에서 재인용).’

‘한국생활 4년차 이주여성: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때렸으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상처 받으니까 그냥 힘들어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19203.’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당선이 확실시되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정됐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52325235&code=910110).’

200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15만 명에 달하고 이는 2000년 49만 명에 대비하여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정유훈, 2009). 또한 2006년도 한국 내 전체 결혼의 11.9%가 국제결혼이었고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2세만 하더라도 16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이주민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적어도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02288631>; 이수정 등, 2008에서 재인용).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원주민인 ‘우리’들과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그들을 맞는 우리들의 전반적

인 태도와 입장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어떤지 알아보고,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개입에 중요한 변인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혈통, 언어, 거주지, 문화의 단일성을 당연시하고 백의민족, 단일민족,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애국심의 기초로 삼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사회의 입장을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독특한 점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 현상의 타개책으로 실시된 관주도 형식의 이민정책이 다문화 사회 형성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과 20년도 안 되는 최근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변화를 맞게 되면서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의 자부심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과 자연스럽게 융합될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우리에게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 것은 ‘우리 핏줄’의 어머니들, 곧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문제가 부각되면서부터였다. 결혼을 매개로 한 여성의 국가 간 이주 현상은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및 전 지구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Castles & Miller, 2003;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더해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폭력을 부가적으로 더 경험하게 되었다(이수정 등, 2008).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과 갈등에 관련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보고된 바 있다(김이선, 2008; 이수정 등, 2008;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최혜지, 2009). 특히 김이선(2008)은 결혼이주성과 가족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문화차이의 조정을 시도할 교섭대상으로 보기보다 목표를 시행해야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들에 대한 전반적 수용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로서 최훈석 등(2008)은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한 결과에서,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과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실체는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Berry(1997, 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2002)에 따르면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의 문화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소수집단의 문화화 전략인데, 동화전략은 자기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일상적 상호작용 관계를 원하는 경우이고, 주변화 전략은 문화유지에 관심도 가능성도 없고 다른 문화 집단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분리 전략은 원래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경향이고, 통합전략은 원래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 집단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Berry는 나중에 이에 덧붙이게 되는 다

수집단의 전략을 덧붙였는데, 각각 용광로(melting pot), 배척, 격리, 다문화 전략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동화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비교적 쉽게 이민을 받아들이지만, 출신국의 고유문화를 탈피해 문화적으로 적응해야함을 강조하고(송미영, 2010),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전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지만, 소수문화 고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지종화, 정명주, 차창훈, 김도경, 2009).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도 이와 같다. 용광로에서 소수문화를 녹여내어 우리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들도, 자녀에 대한 정체성 인식에서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가 전형적이었다. 즉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것에 대한 염려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려면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인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자녀에게 이중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박주희, 정진경, 2007).

한편 이들의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도 역시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를 전제로 공생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단계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유입과 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방향의 문화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의 문화적 다원화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최훈석 등, 2008). 그러나 박주희와 정진경(2007)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는 동화와 통합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동화적 특성만 두드러지는 여성에 비해 더 활기차게 한국생활

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시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음식을 해 먹지만 모국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국 음식을 해먹으며 즐기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며 그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통합적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주류문화 입장의 미래 지향 관점은 통합을 향한 상호소통과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erry 등(2002)의 주장과 같이 소수 민족이 다문화 적응의 전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주류 문화 입장의 세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므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는 우리문화의 입장과 태도, 행동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우리 문화 입장의 수용성에 관하여 최훈석 등(2008)의 심층면접연구 외에 대체로 지금까지 연구된 방향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본 연구(김혜숙, 2007¹⁾; 맹진학, 2009²⁾; 송미영, 2010³⁾; 양계민, 2009ab⁴⁾;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⁵⁾)와 (2) 한

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개발 연구(박주희, 정진경, 2008), 그리고 (3)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혜숙, 2002; 양계민, 정진경, 2005)이다.

이들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를 한 연구는 소수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다문화 수용성을, 인지, 정서,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양계민, 2009ab)하거나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와 같은 보편주의 가치척도로 측정(송미영, 2010)하거나, 혹은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및 정책에 대한 태도(김혜숙, 2007)로 측정하고 있으나, 태도와 행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 때 태도와 행동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31개의 관련 연구를 개관한 Wicker(1969)는 태도와 행동은 무관하거나 약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한규석,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 사회정체성이론과 지금까지 연구된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련한 연구들을 접목하여 다문화적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계획된 행동이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태도란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서, 태도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Allport, 1935;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2005)에 하였다.

- 1) 이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동남아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북한주민 및 호남사람이었다.
- 2) 이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을 ‘소수민족’ ‘대부분의 이민자’등으로 통칭하여 질문하였다.
- 3) 이 연구에서 이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 4)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5)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교류가 빈번하거나 이주자 출신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집단(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 몽골인), 그리고 새터민, 조선족 등 8개 집단을 대상으로

서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모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 모형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예견력을 과시하고 있다. 즉 이론의 주창자인 Ajzen(1991)은 구직 활동, 음주 문제, 선거행동, 학점관리, 체중관리와 같은 다양한 행동에서 이 모형의 우세성을 비교검증 해보였고, 이후에 수유행동(Beale & Manstead, 1991), 피임기구 사용과 같은 고전적인 주제들부터 직업 선택이나 의도(예. Arnold, Loan-Clarke, Combs, Wilkinson, Park, & Preston, 2006; Song, Wanberg, Niu, & Xie, 2006), 운동행동(예. Hoyt, Rhodes, Hausenblas, & Giacobbi, 2009), 운전행동(한덕웅, 이민규, 2001; Forwad, 2009, Norman, Armitage, & Quibley, 2007; Simsekoqlu, & Lajunen, 2008) 등 많은 분야에서 모형이 검증되고 있으며, Armitage와 Conner(2001)는 1997년까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185개의 독립적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에 대하여 .52의 중다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행동의 주된 결정요인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이다(Norman & Smith, 1995).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 AB), 주위 사람들이 행동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압력이나 기대에 동조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 및 자신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지각된 행동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더해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을 모형으로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 및 행동과 관련하여 대상의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이것은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이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를 말한다(한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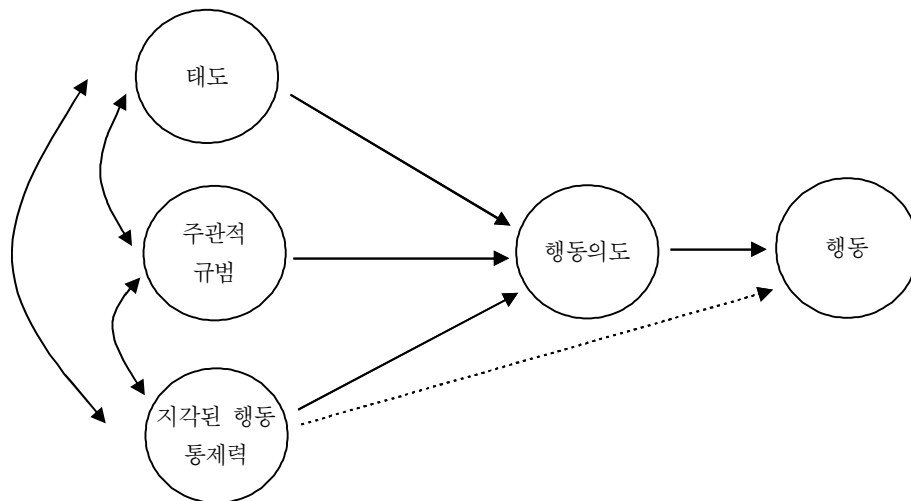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Ajzen, 1991, 그림 1, 182쪽)

웅, 이민규, 2001). 다문화 수용적 태도 혹은 행동평가의 호의성 정도는,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에, 이 결과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곱해진 값으로 개념화되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등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여 그 결과로 측정한다. 한편 김혜숙과 오승섭(1999)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지니는 고정관념, 감정 및 태도로서 안타깝다(26.0%), 빈곤(22.5%), 동포(14.3%), 주체사상(12.6%) 등을 들었는데 이는 ‘대상에 대한 태도’(Eagly & Chaiken, 1993)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규범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들이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과 동조 동기이다(Ajzen, 1988).

셋째, 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보다는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예언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자신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모형에 따르면 행동이 개인의 통제력 밖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행동이 개인의 의지적 통제력 하에 있는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Terry & O’Leary, 1995). 태도가 강하거나 규범적 영향이 강한 상황이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의도를 덜 예견 할 것이다(Armitage, Conner, 2001). 따라서 Ajzen (1991)은 지각된 행동통제가 의도를 예견하는 정도는 행동의 유형과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원이나 기회가 많고 장애물이나 방해요인이 없으면 행동통제력이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한덕웅, 이민규, 2001 참조). 예를 들면,

자신이 중국인 며느리의 중국 문화나 추석 명절 음식을 받아들여 우리의 고유한 차례 음식과 ‘통합’되도록 허락하는데 있어서, 집안 어른들, 친구, 이웃의 시선과 같은 방해 요인이 없고 이 행동을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의도를 더 많이 가지고 또한 그 행동을 더 하게 될 것이다. Ajzen(1991)에 따르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예언하고, 자신이 그 행동에 통제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정확할 때 실제 행동수행을 예언하게 된다.

사회정체성,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 고정관념 및 편견의 통합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Tajfel, 1982). 사회정체성이론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서만 갈등이 발생(현실집단갈등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Sherif, 1966; Forsyth, 1999에서 재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종, 성별, 나이, 집단의 명칭과 같이 집단 간의 사소한 차이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범주화 자체가 집단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의 사회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최근에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사회적 행동과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요인들 가운데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과 관련하여 계속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Armitage와 Conner(2001)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각 요

인들과 의도의 상관을 볼 때 주관적 규범이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의 상관에 비해 더 낮았다. 남성의 성 평등 의식을 예언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과 사회정체성이론의 통합모형을 적용한 연구(김금미, 안상수, 2008)에서도 행동의도로 향하는 네 가지 변인 가운데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가장 약하였다. Ajzen(1991)은 의도가 타인의 압력보다는 태도와 지각된 통제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대신하여 사회정체성이론이나 자기범주화이론에 기초한 '집단소속감'이나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같은 여러 형태의 사회적 영향원들이 주장되고 있다(Hamilton & White, 2008).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행동 의도를 지니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Tajfel(1982)의 정의에 맞춰 '한국인집단정체성'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문항을 선정한 후, 이러한 한국인집단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추가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적 행동이 한국인 집단정체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양계민(2009a)은 한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문화민족 정체성과 단일민족 정체성으로 나누고, 단일민족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을 저해하지만 문화민족정체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문화민족'이거나 '단일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측정하고 있어, 단지 '한국인'이라는 사회적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소수 집단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에 근거하여 연구되고 있다. 고정관념이란 특정한 부류의 성원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된 특성에 관한 신념이다. 또한 편견은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수반되는 부정적 정서와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정리하면, 어떠한 대상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인지적 요소(즉, 고정관념), 감정적 요소 및 행동(즉, 차별)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혜숙, 2000). 이 가운데 감정적 요소만 떼어서 편견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Fiske, 2004).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행동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한 태도는 행동 상황의 부합성과 현저성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 영향을 더 미치거나 덜 미칠 수 있어서(참고: Eagly & Chaiken, 1993)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 및 차별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미 확고한 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고 행동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만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행동의도 및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에 추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정체성과 대상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태도(즉, 고정관념과 편견)를 추가하고 이러한 변인들로 다문화 수용적 행동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조사는 세 개 도시 네 개 대학에 총 517개의 설문지를 임의표집하여 실시하였고, 그 가운데 1/3이상 응답하지 않은 1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서울 A대 112명(남자 51명(46.4%), 여자 59명(53.6%)), 충청도 B대 132명(남자 56명(43.1%), 여자 74명(56.9%)), 경상도 C대 119명(남자 33명(27.7%), 여자 86명(72.3%)), 경상도 D대 142명(남자 78명(54.9%), 여자 64명(45.1%))으로 구성된 전체 505명(남자 218명(43.5%), 여자 283명(56.5%))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이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 지 0(전혀 모른다)~6(매우 잘 안다)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0점 42명(8.3%), 1점 155명(30.7%), 2점 87명(17.2%), 3점 104명(20.6%), 4점 98명(19.4%), 5점 12명(2.4%), 6점 2명(0.4%)이었고, 평균은 2.21점으로 ‘약간 모른다’와 ‘보통’ 사이에 속했다. 실제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0명(33.7%), 없는 경우는 331명(65.5%)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21.47세였다.

측정도구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의도와 행동을 예언하기 위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행동에 관련된 의도와 행동, 그리고 ‘한국

인’에 관련한 사회정체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및 편견을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0.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수용적 태도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혜숙 등(김혜숙, 2002; 김혜숙, 오승섭, 1999; 유연재, 김혜숙, 2000)의 탈북자 및 대북 정책에 관련한 태도를 참고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등의 총 8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주관적 규범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규범적 압력에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금미와 안상수(2008)가 사용한 척도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실행하기에는 규범적 압력을 많이 받아 그러한 방향의 행동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지각된 행동 통제감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수행하기가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김금미와 안상수(2008)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 비교적 결혼이주성을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높은 점수일수록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 행동이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집단정체성⁶⁾

이 척도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다른 문화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 문화 집단이 가진 공유된 속성을 다른 문화 집단과의 정적 혹은 부적인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긍정적인 자기 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금미와 한덕웅(2001)에 의해 개발된 18문항 및 금명자, 권해수, 및 이희우(2004)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정체감 척도, 양계민(2009)의 한민족 정체성 및 단일민족 정체성 문항을 2009년 말에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로 추정하였다.

6) ‘한국인집단정체성’이라는 명칭은 인종 정체성, 민족 정체성, 국민 정체성, 문화 정체성, 문화집단정체성, 집단문화정체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선택된 이름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 중국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고, 결혼이주여성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지닌 경우가 많고,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은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민족, 국민, 인종 정체성은 적합지 않다고 여겨졌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경계가 문화라고 생각되고 집단 간 실체감을 더 표현하기 위하여 문화집단 정체성 혹은 집단문화정체성이라고 명명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명칭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면이 표현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인 집단정체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고 전체 15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때 선정된 세 요인에 해당하는 15문항으로 실시한 본 조사 결과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0.09%를 설명하였고 관련 선행연구(김금미, 한영석, 2002;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의 결과와 대체로 일관되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인집단자존심’ 요인의 평균은 3.57($SD=1.07$)로 한국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긍지, 한국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의미부여, 중요성 지각과 관련된 내용이며, 0~6점의 7점 척도의 중간 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그쳤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4.52,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한국인집단몰입’ 요인의 평균은 7점 척도 가운데 4.38 ($SD=1.01$)로 전체적인 집단문화정체성의 방향과 일관되도록 문항의 방향을 역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데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등 부정적인 정서를 낮게 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54,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한국인집단범주화’ 요인은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은 정도, 쉽게 믿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착 등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정도를 나타내고 평균은 3.47($SD=.93$)로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96, 신뢰도 계수는 .75였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한국인 집단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3.82($SD=0.70$)로 척도의 중간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2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체

를 평균하여 한국인집단정체성 측정치로 사용하였고,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 집단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대학생들이 결혼이주여성에 공통적으로 지나리라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신념으로 측정하였다. 탈북자 및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김혜숙, 2002; 전우영, 1999)에서 사용한 형용사와 Cuddy, Fiske, 및 Glick(2007)의 고정관념 형용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들(김이선, 2008 등)을 참조하여, ‘권위주의적이다’, ‘정이 많다’ 등의 44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여 2009년 말에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공통성을 참조하고 의미상 매우 비슷한 문항을 가려내어 37개의 형용사를 본 조사에 실시하였고,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알아 보았으며 그 방법은 한국인집단정체성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 스크리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58.51%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정적 고정관념’ 요인은 ‘침략적이다’, ‘거만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0~6점의 7점 척도에서 평균이 1.51($SD=.98$)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0.91, 신뢰도 계수는 .95였다. ‘이해심있다’, ‘따뜻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고정관념’ 요인의 평균은 역산하여 6점 만점의 7점 척도 가운데 3.28($SD=.86$)로 중간 정도의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8.14,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마지막으로 ‘유능하

다’, ‘지적이다’와 같은 ‘유능성 고정관념’ 요인의 평균은 2.05($SD=.90$)로 결혼이주여성이 덜 유능하다고 생각함을 할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60,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고정관념의 전체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2.03($SD=0.65$)으로 척도의 중간 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1이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체를 평균하여 고정관념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편견

편견은 대학생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서와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유연재, 김혜숙(2000)의 북한에 대한 문항, Cuddy 등(2007)의 정서 측정 형용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들(김이선, 2008 등)을 참조하여, 13개의 형용사를 본 조사에서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정적 정서성’ 요인은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무섭다’, ‘경멸스럽다’, ‘화가 난다’, ‘질투한다’, ‘불편하다’의 부정적인 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0~6점

7) 고정관념과 편견 측정치는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긍정적 문항을 역산하여 부정적 방향이 되도록 하였다. 보통 고정관념과 편견의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의 원래 문항 내용에는 긍정/부정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내용을 기술할 때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고정관념은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편견은 ‘편견’이라고 명명하였다.

의 7점 척도에서 평균이 1.20($SD=1.01$)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5.67,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자랑스럽다’, ‘존경할 만하다’, ‘부러워하다’의 3문항으로 구성된 ‘존경·긍정적 정서성’ 요인의 평균은 역산하여 0~6점의 7점 척도 가운데 1.69($SD=1.04$)로 낮은 존경·긍정적 정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20, 신뢰도 계수는 .74였다. 마지막으로 ‘불쌍하다’, ‘동정한 다’, ‘슬프다’의 ‘연민 정서성’ 요인의 평균은 2.98($SD=1.29$)로 결혼이주여성에게 평균정도의 연민 정서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66,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전체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2.33($SD=0.61$)으로 척도의 중간값인 3점(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였으며,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편견은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

행동의도 문항은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려는 것으로서, 태도가 가치나 신념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행동 의도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실천 의사나 행동 추구 경향을 묻는다는 점에서 다르다(Ajzen, 1991). 선행연구들(유연재, 김혜숙, 2000, 맹진학, 2009 등)에서 태도의 행동적 요소로 주로 보는 사회적 거리 척도는 ‘결혼이라도 하겠다, 데이트 상대로 삼지 않겠다(R)’ 등의 문항으로 대체로 행동의도를 측정한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행동의도로 삼아 측정하였다. ‘나는 결혼이주여성을 개인적인 가까운 친구모임의

멤버로 삼겠다’ 등의 6문항이었다. 원래 척도는 거트만식 척도이나 선행연구들과 같이 리커트형 척도로 삼아 문항의 평균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강함을 의미하므로, 평균 3.86($SD=0.83$)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행동의도를 지님을 뜻한다. 6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다문화 수용적 행동

김금미, 한덕웅(2001), 김금미, 안상수(2008), 및 Cuddy 등(2007)의 문항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실제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한 경험이나 하는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친구들에게 결혼이주여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을 돕는다’ 등의 19문항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적 행동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므로, 평균 3.92($SD=0.84$)점에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행동 경향을 알 수 있다. 19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18로 처리하였다.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녀 및 접촉 경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삼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한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사용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먼저 조사 대상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이 다문화 수용적 태도, 행동의도, 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규범은 남성이 더 높아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다문화 수용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부정적 압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행동통제력은 남

자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한국인집단정체성과 편견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구성개념의 상호상관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용적 태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있을수록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한국인집단정체성이 낮을수록, 중요한 타인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수용적이지 않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이 낮고, 편견이 낮을수록

표 1.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N	평균(표준편차)	t	P
태도	남	217	3.742(.9611)	-2.914**	.004
	여	280	3.989(.9199)		
주관적규범	남	217	2.124(1.063)	5.683***	.000
	여	281	1.600(.9857)		
행동통제력	남	218	3.305(.9367)	1.893 ⁺	.059
	여	282	3.146(.9311)		
한국인집단정체성	남	209	3.868(.7609)	1.343	.180
	여	279	3.783(.6437)		
고정관념	남	213	2.104(.7148)	2.160*	.031
	여	281	1.974(.5877)		
편견	남	216	2.338(.6560)	.335	.738
	여	283	2.319(.5691)		
행동의도	남	218	3.759(.8755)	-2.357*	.019
	여	283	3.935(.7962)		
행동	남	214	3.809(.7275)	-3.167**	.002
	여	277	4.012(.6837)		

주. ⁺p<.10,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

표 2. 구성개념 측정치들 간의 상관행렬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	한민족 집단 정체성	고정 관념	편견	행동 의도	행동
태도	1	-.259**	.316**	-.119**	-.406**	-.232**	.592**	.559**
주관적 규범		1	-.323**	-.123**	.387**	.311**	-.387**	-.507**
행동 통제력			1	-.061	-.333**	-.377**	.478**	.536**
한국인집단정체성				1	-.004	.012	-.115*	-.048
고정관념					1	.497**	-.489**	-.578**
편견						1	-.419**	-.469**
행동의도							1	.751**
행동								1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가 높아졌다. 이들 간의 상관은 한국인집단정체성을 제외하고는 중간정도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용적 태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있을수록,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적 행동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이 낮고, 편견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적 행동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인집단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적 행동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경우와 일관되게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대해서도, 요인들 간에 대체로 중간이상의 상관을 보였고 특히 행동의도와 행동의 상관은 .751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모형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 구성된 모형을 비교 검증하기 전에 변인들간의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632~.956, 분산팽창요인은 1.046~1.583으로 10이하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설명량과 한국인집단정체성 및 고정관념과 편견의 추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가정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47.7%, $F(3, 473)=143.66$, $p=.000$ 였고, 세 예측변인 가운데 태도($\beta=.455$, $p<.000$)가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지각된 행동통제력($\beta=.284$, $p<.000$)과 주관적 규범($\beta=-.178$, $p<.000$)의 순서였다.

다음으로 사회정체성이론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인집단정체성의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네 개의 예측변인으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48.0%를 설명하였다, $F(4, 472)=108.91$, $p=.000$. 그러나 이때 한국인집단정체성의 설명 정도는 유의한

표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선행요인	추가요인	계획된 행동이론				사회정체성이론				고정관념, 편견			
		B	β	t	P	B	β	t	P	B	β	t	P
		1.800		10.992	.000	2.117		8.554	.000	3.134		10.727	.000
태도		.393	.455	12.793	.000	.386	.447	12.475	.000	.343	.397	10.953	.000
주관적규범		-.138	-.178	-4.972	.000	-.147	-.189	-5.204	.000	-.099	-.127	-3.475	.001
행동통제력		.247	.284	7.793	.000	.243	.280	7.674	.000	.193	.223	6.062	.000
	한국인집단정체성					-.069	-.058	-1.708	.088	-.073	-.061	-1.864	.063
	고정관념									-.180	-.140	-3.484	.001
	편견									-.171	-.126	-3.285	.001
R^2		$R^2=.477$.000				$R^2=.480$.000				$R^2=.518$.000			
Adj R^2		Adj $R^2=.473$				Adj $R^2=.476$				Adj $R^2=.511$			

경향을 보이는데 그쳤다($\beta=-.058, p<.088$).

이어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력 및 한국인집단정체성에 고정관념과 편견 변인을 추가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 여섯 개의 예측변인이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51.8%, $F(6, 470)=84.07, p=.000$ 였다. 예측변인들 가운데 태도($\beta=.397, p<.000$)가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지각된 행동통제력($\beta=.223, p<.000$), 고정관념($\beta=-.140, p<.001$), 주관적 규범($\beta=-.127, p<.001$), 그리고 편견($\beta=-.126, p<.001$)의 순서로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집단정체성의 영향은 여전히 유의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쳤다($\beta=-.061, p<.06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

도에 적용했던 방식을 따라서 분석하였다(표 4). 먼저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로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꼽는다.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때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먼저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에서 설명되는 변량은 61.1%, $F(2, 469)=369.09, p=.000$ 였고, 예측변인 가운데 행동의도($\beta=.642, p<.000$)가 지각된 행동통제력($\beta=.232, p<.000$)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인집단정체성 변인이 추가적으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지 알아본 결과, 한국인집단정체성을 포함한 모형의 전체 설명량은 61.4%, $F(3, 468)=247.77, p=.000$ 였으나, 한국인집단정체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못했다($\beta=.047, n.s$). 이에 더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의 추가적 설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을 동시에 추가하였다.

표 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선행요인	추가요인	계획된 행동이론				사회정체성이론				고정관념, 편견			
		B	β	t	P	B	β	t	P	B	β	t	P
		1.262		12.506	.000	1.062		6.641	.000	2.225		10.110	.000
행동의도		.549	.642	19.419	.000	.554	.647	19.515	.000	.457	.534	15.504	.000
행동통제력		.172	.232	7.008	.000	.173	.232	7.047	.000	.144	.194	6.095	.000
	한국인집단정체성					.047	.047	1.615	.107	.032	.032	1.172	.242
	고정관념									-.238	-.217	-6.511	.000
	편견									-.067	-.059	-1.803	.072
	R^2	$R^2=.611$.000				$R^2=.614$.000				$R^2=.659$.000			
	Adj R^2	Adj $R^2=.610$				Adj $R^2=.655$				Adj $R^2=.678$			

표 5.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접촉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적 행동관련 변인의 차이

		N	평균(표준편차)	t	P
태도	유	170	3.948(.8531)	1.088	.277
	무	327	3.851(.9846)		
주관적규범	유	169	1.789(1.0355)	-.593	.553
	무	329	1.848(1.0610)		
행동통제력	유	170	3.348(.9336)	2.316*	.021
	무	330	3.144(.9327)		
한국인집단정체성	유	167	3.840(.6545)	.418	.676
	무	321	3.812(.7201)		
고정관념	유	167	1.921(.5634)	-2.791**	.006
	무	327	2.082(.6816)		
편견	유	170	2.284(.6044)	-1.179	.239
	무	329	2.351(.6099)		
행동의도	유	170	3.998(.8197)	2.663**	.008
	무	331	3.789(.8349)		
행동	유	164	4.115(.6831)	4.280***	.000
	무	327	3.829(.7034)		

이 다섯 개의 예측변인이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65.9%, $F(5, 466) = 179.88, p = .000$ 였다. 예측변인들 가운데 행동의도($\beta = .534, p < .000$)가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고정관념($\beta = -.217, p < .000$)과 지각된 행동통제력($\beta = .194, p < .000$)이 중요했고, 행동의도를 설명할 때 유의했던 편견은 유의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쳤다($\beta = -.059, p < .072$). 한국인집단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 = .032, n.s$). 결론적으로 한국인집단정체성의 효과가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경향을 보이고 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못했지만,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의 효과를 추가하여 설명량을 확인한 결과,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51.8%,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 65.9%를 설명하는 강력한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 접촉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들의 차이

참고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접촉 경험에 따라 다문화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지각된 행동통제력, 고정관념, 행동의도와 행동이었다. 즉, 접촉경험이 있으면 더 그들에 대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으며, 행동의도와 행동이 더 다문화 수용적이었다. 반면, 그들을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없는 경우에 비해 태도, 주관적 규범, 한국인집단정체성, 편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라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점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라 한국인집단정체성이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고정관념 연구 진영에서 대상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하게 연구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대상에 대한 태도’로 개념화하여 그 영향을 추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중요한 결과로서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서 다문화 수용적 행동 의도는 47.7%, 행동의 61.1%가 설명되었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변인들에 한국인집단정체성이 추가되었을 때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각각 48.0%, 61.4% 설명하였으나, 한국인집단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추세를 보이는데 그쳤고, 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추가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51.9%, 행동의 65.9%를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행동의 발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서로 다른 이론에서 언급되어 오던 변인들을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 이론의 틀에 근거하면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 위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의도와 행동의 구분,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의 구분 등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몇 가지 중요하게 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했던 한국인집단정체성 변인이 기대와 달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를 예언하는 데는 유의한 추세를 보이는데 그쳤고,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 원인에 관하여 몇 가지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한국인집단정체성으로 구성된 문항이 과연 적절한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양계민(2009a)의 연구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을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는데 단일민족정체성과 문화민족정체성이다. 단일민족정체성 문항은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성이 높은 국민이다’ 등의 6문항으로, 그리고 문화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와 같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맹진학(2009)의 연구에서 질문하는 한국인의 자부심(1. 매우 자랑스럽다~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에 가깝게 보이고, 양계민(2009a)의 자민족중심주의(문항 예: ‘한국의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 문화보다 월등히 우수하다’)에 가까운 형태의 민족정체성 측정문항이라고 생각된다. 혹은 본 연구에서 구성된 한국인집단정체감 척도 가운데 한국인집단자존심요인에 가깝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한국인집단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지식, 가치, 정서적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Tajfel(1982)의 정의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만약 한국인집단정체성의 문항의 문제가 아니라면, 한국인집단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 실제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대학생의 행동 및 행동의도가 ‘한국인집단정체성’과

실제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그들에게 다문화수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중요하다’거나, ‘내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거나 ‘한국 사람들을 결혼이주여성들보다 쉽게 믿는’ 것 등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론(Tajfel, 1982)에 따르면 최소집단범주의 구분만 있어도 내외집단 간에 편애가 일어나지만, 양계민(2009b)이 권위주의 공격성, 한민족정체성, 현실적 갈등 인식을 통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에게 일관되게,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에 가까운 정체성 측정치가 아닌 현실갈등인식이 가장 중요했다. 본 연구에서도 편견 가운데 혐오스럽다, 화가 난다 등의 부정적인 정서성이 0~6점의 7점 척도에서 평균이 1.20(SD=1.01)로 매우 낮아서 현실갈등에 대한 인식조차도 낮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집단정체성이 발현되지 못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동상황을 가정한 실험 연구나 시나리오 연구 등을 통해 추후에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촉 경험이 한국인집단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관하여 앞서 실시한 모형검증과 일관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접촉유무에 상관없이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 패턴은 표 4와 비슷했다. 그러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패턴은 약간 달랐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포함시킨 경우에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태도($\beta=.428, p<.000$), 주관적 규범($\beta=-.186, p<.000$), 지각된 행동통제($\beta=.158, p<.000$), 한국인집단정체성($\beta=-.085, p<.032$), 고정관념($\beta=-.162, p<.001$), 편

견($\beta = -.127, p < .007$)이 모두 유의했던 결과에 비해,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태도($\beta = .342, p < .000$), 지각된 행동통제($\beta = .359, p < .000$)가 유의했지만, 주관적 규범($\beta = -.034, n.s.$), 한국인집단정체성($\beta = -.025, n.s.$), 고정관념($\beta = -.032, n.s.$)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편견($\beta = -.139, p < .051$)은 추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오히려 결혼이주여성과의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의도에는 한국인집단정체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집단 간 접촉 가설과 일관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행동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양계민과 정진경(2005)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과 접촉경험이 다양한 집단들의 태도, 신뢰, 수용 등을 연구한 결과에서 무경험집단이 부정적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았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접촉을 했다 라도 접촉의 방식, 즉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 학교 교사 집단에 따라 대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접 측은 간접 경험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안하였는데, 고정관념 요인분석의 결과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 긍정과 부정의 두 차원으로 나뉘었던 전우영(1999)의 연구결과와, 배타·폐쇄, 협동·단결, 침략·미개, 권위·이기, 순박·

정, 실리적·합리적인 6요인으로 나뉘었던 김혜숙(2002)의 결과 및 고정관념을 따뜻함과 유능함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는 Cuddy 등(2007)의 연구와 비교할 때, 긍정, 부정, 유능성 차원으로 수렴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편견(정서)을 측정하는 문항의 요인분석의 결과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 불안·불쾌, 즐거움·정, 동정의 3요인으로 나뉘었던 김혜숙(2002)의 결과와 대체로 일관되고, 따뜻함과 유능함의 고정관념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민, 존경, 질투, 혐오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는 Cuddy 등(2007)의 연구와 비교하면 결혼이주여성이 위치하게 되는 따뜻/무능 고정관념 차원(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의 연민 정서 요인은 명확하게 구분되나 나머지 요인들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효과는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 고려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상에 대한 태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에 비하여 행동에 대한 부합도가 낮아서 실제 행동 발현에 대하여 행동에 대한 태도보다 설명력이 낮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점으로 인해 계획된 행동이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투표행동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직접 접촉경험에 의해서보다는 미디어나 주변 사람의 태도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에서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접촉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련해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중요할 것인데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모두 중요하지만, 행동을 설명할 때는 고정관념이 유의하

고 정서가 유의한 추세를 보이는데 그쳤다(표 3, 4참조). 접촉경험에 따라 구분했을 때에도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표 3, 4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행동을 설명할 때 편견이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57, n.s.$). 그러나 결혼이주여성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고($\beta = -.032, n.s.$), 편견은 유의한 추세를 보였고($\beta = -.139, p < .051$),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유의했고($\beta = -.143, p < .010$), 편견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1, n.s.$). 정리하면 고정관념과 정서를 비교해볼 때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고정관념과 정서 모두, 혹은 정서가 비교적 중요하지만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Devine(1989)의 주장과 같이 편견이 활성화된 후에 부정적 사고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편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부정적 고정관념이 덜한 점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주목된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대한 메타분석의 결과에서 주관적 규범이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에 비해 의도와 상관이 더 낮았다(Armitage, & Conner, 2001). 그러나 본 연구(표 2 참조)에서는 행동의도와 상관이 .387로 낮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행동과의 상관이 -.507에 이른다는 점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는 행동에 이르는 주관적 규범의 경로를 별도로 상정하지 않으나, 상관분석의 결과를 참조하여 지각된 행동통제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행동에 별도로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표 4의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주관적 규범을 추가한 결과, 다문화 수용적 행동 전체 변량의 68.2%, $F(6, 465) = 166.44, p = .000$ 를 설명하였고, 주관적 규범의 설명량이 유의하며($\beta = -.177, p < .000$) 그 중요도는 지각된 행동통제보다 컸다($\beta = .168, p < .000$). 이러한 경향은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beta = -.260, p < .000$)와 없는 경우($\beta = -.154, p < .000$)에 일관되었고, 특히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관적 규범의 설명량은 지각된 행동통제($\beta = .171, p < .000$)보다 크고 행동의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먼저 주관적 규범의 정의는 중요한 타인의 요구나 압력에 대한 지각과 동조 동기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연구 대상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에 관해 얼마나 아는지를 질문했을 때 ‘상당히 안다’ 이상이 14명이어서 ‘거의 모른다’ 이하인 197명과 대비되며, 실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학생들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이 직접 어떤 행동의도를 형성하여 행동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미치는 주관적 규범의 직접적인 효과는 이후 연구에서 계속 주목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간략히 정리하고 그 의의와 함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지금까지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많은 문항들을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거나 태도와 행동의도와 행동을 구분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개념 틀은 이후 관련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 틀에 맞추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효과를 추가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65%이상의 설명력을 갖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셋째,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 추가된 설명력 확인에 더하여, 편견이 행동의도에, 고정관념이 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의 직접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전체 대학생들이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의 점수가 0~6점의 7점 척도에서 2.03점과 2.33점으로 대체로 낮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은 3.86점과 3.92점으로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계층(송미영, 2010)이라 할 수 있고, 다른 계층보다 어느 정도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이며, 외국방문이나 인터넷 사용 등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외국문화를 접촉할 수 있어서 개방성과 수용성이 높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응답자들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을 직접 대면하여 오래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인지도에 대한 질문에서 6점 만점에 5점 이상자는 14명). 이러한 경향성들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보이는 점수들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효과나 결과들은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이러한 이론적인 시사점에 더해, 아직 이르지만 본 연구가 지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실제적 시사점을 생각해보면, 첫째, 다문화수용적 행동과 행동의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들에서 다문화 수용적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고정관념과 편견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행동에 미치는 고정관념의 영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편견의 영향을 고려하여 초점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볼 때 현재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의 의견과 그에 따른 동기에 초점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탈북자 및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술한 모형을 검증하고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련한 좀 더 일반화된 모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한국인집단정체성의 개념과 그 영향 경로를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문화 간 관계에서 문화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개념틀(한덕웅, 최훈석, 2007)이나 문화화 스트레스와 적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의 틀(Berry et al., 2002)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문화 적응의 스트레스 과정과 그 결과로 생기는 적응과 행복 수준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Cuddy 등(2007)의 ‘고정관념 → 정서 → 행동’의 설명틀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된 연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정관념이 세 차원으로, 정서가 세 차원으로 나뉘어서 Cuddy 등(2007)의 결과와 비일관된 면이 있으나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일관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연구들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들이 상당히 불일치함에 따라 이러

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제작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이 덜하고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 경향성이 더 높았다. 여성성의 특징으로 주로 언급되는 보살핌과 배려의 특성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했을 수도 있고,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여성이라는 점이 교차범주화(cross-categorization)를 일으키게 했을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원인에 관해서는 추후에 연구할 일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강력한 연구기반을 지닌 이론들에 기초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설정하고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높이는 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고정관념과 편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행동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고 향상 교육에 중요한 변인들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모형 통합에 따른 추후 연구 과제들 외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이에 따른 추후 연구의 과제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행동의도와 행동을 구분하였고, 행동의도는 태도에 따라 행동 하려는 경향성, 행동은 행동 경험을 설문지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점이 이러한 연구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과연 조사연구에서 행동의도와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두 변인간의 상관은 .751이어서 매우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이나 시나리오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체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표집의 한계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련하여 좀 더 정교한 표집 추출 단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경로의 구조를 분석하고 검증하며 교차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에 기반 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문화 수용성 향상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금미, 안상수 (2008). 남성의 성 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 통합: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33-155.
- 김금미,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 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금미, 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 남성의 성별관

- 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이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 경험을 통해 본 정신건강의 역동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51.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19-45.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맹진학 (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323-348.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박주희,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21.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분석,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41, 74-194.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 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양계민 (2009a).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계민 (2009b).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97-115.
- 유연재, 김혜숙(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이수정, 이해선, 김연정, 명 정, 강명희 (2008). 다문화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1), 63-83.
-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정유훈 (2009). 국내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09-44(통권 373호), 현대경제연구원.
- 지종화, 정명주, 차창훈, 김도경 (2009).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471-510.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

- 런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61(1), 163-194.
-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2005). 사회심리학. 학지사.
- 한덕웅, 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41-158.
- 한덕웅, 최훈석 (2007).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적응과 갈등에 관한 심리학 연구. *다문화 사회 한국사회과학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1-37.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Dorsey.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71-499.
- Arnold, J., Loan-Clarke, J., Combs, C., Wilkinson, A., Park, J., & Preston, D. (2006). How well ca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ccount for occupational inten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 374-390.
- Beale, D. A., & Manstead, A. S. R. (1991). Predicting mothers' intentions to limit frequency of infants' sugar intake: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409-43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648.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 Fiske, S. T. (2004). *Social beings: A core motives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Forsyth, D. R. (1999). *Group Dynamics* (3r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orwad, A., (200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role of descriptive norms and past behaviour in the prediction of drivers' intentions to violat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2, 198-207.
- Hamilton, G., & White, K. M. (2008).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role of self and social influences in predicting adolescent regular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0, 56-74.
- Hoyt, A. L., Rhodes, R. E., Hausenblas, H. A., & Giacobbi, Jr, P. R. (2009). Integrating five-factor model facet-level traits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xercis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 565-572.

- Norman, P., Armitage, C. J., & Quibley, C. (2007).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binge drinking: Assessing the impact of binge drinker prototypes. *Addictive Behaviors*, 32, 1753-1768.
- Norman, P., & Smith, L.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exercise: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ur, behavioural intentions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403-415.
- Simsekoğlu, O., & Lajunen, T. (2008). Social psychology of seat belt use: A comparis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health belief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1, 181-191.
- Song, Z., Wanberg, C., Niu, X., & Xie, Y. (2006). Action-state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study of job search in Chin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490-503.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erry, D. J., & O'Leary, J. E.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5, 199-220.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 N1000719203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52325235& code=910110
- 1 차원고접수 : 2010. 5. 10.
심사통과접수 : 2010. 6. 15.
최종원고접수 : 2010. 6. 25.

Th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on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Keum-mi,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explaining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intention as well as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i.e., tes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 to investigate the role of Korean social identity in the prediction of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stereotype and prejudice(i.e. attitude about object) in the prediction of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A sample of 505 undergraduat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from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multicultural receptive intention was explained 47.4% b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hile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was explained 61.1% by this theory. When the Korean social identity, stereotype and prejudice were added into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variance was increased to 51.8% for multicultural receptive intention and 65.9% for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the Korean social identity on multicultural receptive intention/behavior was weak, but the influence of the stereotype on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was strong.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 words :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multicultural receptivity, stereotype, prejudic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tention, Korean social identity